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4년 2월 제 132-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목요일 오후엔 요셉의원에 식사하러 달려옵니다”

목요식사나눔과 이·미용 서비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배식 봉사자들이 목요식사나눔에 앞서 접시와 물컵, 수저 등을 미리 챙겨서 준비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매주 화요일(다섯째 주 제외) 오후 1층 접수실 앞에서 실시하는 이·미용 서비스.

“요셉의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깔끔한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 주어서 빼놓지 않고 꼭 들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에 돼지갈비찜까지 나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진행한 본원 목요식사나눔에 참석한 쪽방 주민 김 모 씨(63)는 “매주 목요일 식사나눔이 기다려진다”며 활짝 웃었다.

코로나로 인해 2년여 이상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재개한 목요식사나눔과 이·미용 봉사가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달 반전의 첫 목요나눔에는 89명이 참여했으나, 이후 점차 숫

자가 늘어 100명 선을 넘어서더니 1월 말에는 140명을 기록했다.

본원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는 목요식사나눔의 호응도가 높은 것에 대해 “쪽방촌 방문 서비스를 통해 식사나눔 재개 사실을 널리 알렸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원에서는 봉사자와 직원들을 위해 내놓는 음식과 똑같이 좋은 재료를 쓰고, 영양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많은 분이 선호하는 메뉴를 택해 가정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식사 후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디저트로 바나나도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132-1호
주요
소식



목요나눔 호응 높아

1



병원 소식

4



쪽방촌 향기

6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0



국성회 소식

13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식사 나눔에는 20명 내외의 봉사자와 직원이 참여해 행사 시작에 앞서 함께 기도를 올린다. 사진 오른쪽은 본원에 찾아온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이 식사하는 모습.

요셉의원의 밥이 맛있다는 것은 본원 봉사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요셉의원에 봉사 나오는 즐거움의 하나로 ‘맛있는 식사’를 꼽을 정도. ‘손맛이 좋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심인숙 영양팀장은 “어려운 시간을 쪼개 달려오시는 봉사자분들에게 식사라도 맛있게 해드리자는 생각에서 꾸준히 정성을 다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목요나눔을 위해 백수십 명분의 많은 식사를 준비해도 이런 정성과 ‘손맛’이 뒷받침되는 만큼 맛에 있어서는 웬만한 유료 식당에 뒤지지 않는다.

지난 2월 15일 목요식사나눔에 참석한 노숙인 최모 씨(67)는 “영등포 지역의 몇 군데 무료 급식소에 들르곤 하는데, 요셉의원 식사는 밥이나 국, 반찬이 모두 집에서 먹는 것처럼 친근하고 맛이 있다”고 말했다.

봉사자와 직원이 협력해 백수십 명분 음식 대접

매주 목요일마다 100~15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조리, 배식에 설거지까지 마치고 위해서는 병원 내 여러 팀이 협력해야 하고 많은 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원 사회사업실과 영양팀 및 자원봉사팀은 나눔 며칠 전 예상되는 식사 인원과 봉사 인원을 협의하고 메뉴를 확정하는 다음, 나눔 전날 장에 가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해 나눔 당일 오전에 조리를 시작한다. 메뉴를 정하는 데도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심인숙 영양팀장은 “가능한 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단백질 메뉴를 주로 하되, 고령층 식사자가 많기 때문에 가시나 뼈가 있는 생선이나 닭도리탕 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고 말했다. 대체로 밥과 국 그리고 김치를 비롯한 반찬 세 가지가 기본 메뉴이며, 계절에 따른 특별식으로 여름에는 삼계탕, 설 명절에는 갈비찜 떡

국, 추석에는 송편도 곁들여 낸다.

조리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이때 영양팀 3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조리 참여하고 조리가 끝나면 자원봉사 조리팀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다른 설거지 봉사자들과 교대한다. 주방에서 10명 정도가 일손을 나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식사하는 식당 홀에도 별도로 10여 명의 배식 봉사자들이 배식 서비스를 한다. 배식 봉사자들은 식사 시작 전 식당에 미리 도착해 수저와 물컵, 접시 등 배식 도구를 점검한 뒤 주방 봉사자들과 함께 홀에 모여 식사나눔 기도를 올린다. 이어 식사가 시작되면 주방에서 마련한 밥과 국, 반찬을 식탁으로 나르고, 밥이나 반찬 등을 추가 요청하면 재빠르게 보충해 준다. 봉사자 두 명은 문 옆에 잔반 통을 갖다 놓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이의 식기를 받아 잔반 처리를 한다.

다른 봉사 제쳐두고 목요나눔 봉사 나오기도

목요나눔을 재개한 지난해 11월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허정연(레아, 대치동성당)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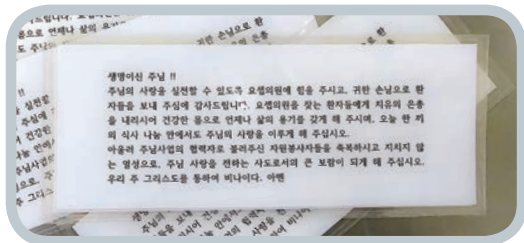
주방 봉사자들이 반찬으로 나가는 생선전을 부치는 모습. 봉사자 두 명이 잔반 처리를 하고 있다. 주방에서의 설거지 모습(사진 왼쪽부터).



자는 “식사를 마친 분 중에 더 먹고 싶어도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제법 많은 것 같아 수시로 살펴보면서 더 드시라고 권한다”며, “공간이 있다면 식사 후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식사자들보다 배식 봉사자의 평균 연령이 더 높은 편이다. 홀에서 배식 봉사하는 남성 봉사자들이 대체로 60대 중후반에서 70대 후반까지인 데 비해, 식사자는 4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남성 봉사자들 가운데는 성당 신심단체 소속인 경우가 많아 여러 명이 함께 요일을 정해 봉사를 나온다.

식사 봉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데 동참한다는 점에서 봉사자 흡인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목요



식사 나눔에 앞서 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올리는 기도문.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삶의 용기를 갖게 해 달라는 청원을 담았다.

나눔 시작 때부터 배식 봉사를 나온 김영추 봉사자(79, 베드로, 양재동성당)는 “처음에는 레지오 뵈레시디움 단원 7~8명이 한 주일 배식 봉사를 맡아 하다 지난해 11월 재개한 다음부터는 다섯 명이 셋째 주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다섯째 주 목요나눔에도 참여하기로 단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목요나눔 봉사를 해온 이의남 봉사자(81, 베네딕토, 청담동성당)는 “코로나 때는 길벗사랑공동체가 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를 주로 하다 지난 11월 요셉 의원에서 목요나눔을 재개한다는 연락을 받고 예정돼 있던 봉사 일을 제쳐두고 왔다”고 말하고, “불편한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이·미용사가 한 달 네 번 이발 봉사

한편 목요나눔에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재개한 이·미용 봉사도 찾는 이들이 늘어나 횟수를 늘렸다. 처음 한 달에 한 번만 할 때는 하루 10명 선이었다가 20명 정도까지 늘어나자, 1월 초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 달에 네 번(다섯째 주 제외) 서비스하고 있다.



본원 이미용 봉사자가 1층 현관 대기실에서 이발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윤태일 봉사자가 선우 경식 초대원장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 모습. 고 선우 원장도 가끔 병원 내에서 이발을 하며 환자 및 봉사자들과 어울렸다.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는 “도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미용사들이 세련되게 머리를 손질해 주시니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며, “이발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본원 목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샤워도 하고, 속옷이나 겉옷도 새것으로 받아 입을 수 있어 원스톱으로 깔끔한 모습을 가꿀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앞에서 헤어샵을 열고 있는 오현숙 미용 봉사자는 “이발하러 오시는 분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려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외모를 가꾸다는 것은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본원 목동의 집 관리를 하며 이발봉사도 했던 윤태일(알비노) 봉사자는 홀로 사는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의 머리를 다듬을 때는 말년에 혼자 생활하다 돌아가신 부친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뵈면 으레 부스스한 머리를 손질해 드리곤 했지요. 머리 다듬으면서 세상일이나 건강, 걱정거리 등을 주고 받으며 정을 도탑게 했는데,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응어리를 좀 녹여드리려 노력합니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호응도 면에서 목요식사 나눔과 이미용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치료와 영화포럼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해 시무 미사 봉헌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1월 2일 오전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및 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새해 시무미사를 봉헌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강론에서 “올해는 선우 선생 기념사업 부문에서 4월 경 전기가 출간될 예정이고, 5월에는 가톨릭대의대

에서 선우 선생의 정신과 헌신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요셉의원의 출발점에서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



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고, “그 정신에 따라 올해에는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도 좀 더 구체화하고, 특히 재개발을 앞두고 추진 중인 노력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고영초 원장은 “새해에는 지난해 6월 돈의동과 11월 영등포에서 시작된 방문 진료가 궤도에 올라 많은 쪽방촌 환자들에게 도

The-K예다함상조, 후원금 1000만 원 기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The-K예다함상조(대표이사 객재환) 오승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일행이 지난해 12월 22일 본원을 방문해 임직원 급여

끝전 모금액을 포함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오승찬 전 대표이사는 이날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쪽방촌 재개발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쪽방 주민을 포함한 노숙인분들이 연말 연시를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K예다함상조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본원에 후원금을 기탁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연말에 쪽방촌 신자 모임 가져

지난해 12월 28일 본원 원목실에서는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와 함께 쪽방촌 방문 봉사를 하고 있는 류 마리스텔라 수녀와 최미화(모니카) 봉사자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자 모임은 쪽방촌에서 고립돼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신자들만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지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기 소개와 함께 성경과 전례에 관한 퀴즈도 풀고 마리스텔라 수녀의 기

타 반주에 맞춰 성가와 가요도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마리안나 수녀는 목주를, 마리스텔라 수녀는 노틀담 수녀회에서 만든 양말목 리스를 그리고 최 모니카 봉사자는 케익과 빵을 준비해 참석한 교우들에게 선물했다.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 이임



지난해 8월 21일 본 재단 원목수녀로 부임한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재임 6개월 만인 지난 2월 15일 수도회 방침에 따라 경기도 안산의 공동체로 자리를 옮겼다. 마리안나 수녀는 1980년 부산 영도의 달동네에

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이래 남미 페루의 가난한 마을에서 10년을 봉사하고, 귀국 후 서울 서대문 밥집 운영과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자선 활동 등을 하며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해 왔다. 본원에 부임해



서도 조용히 가난한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벗이자 응원자 역할을 했다. 마리아나 수녀는 이날 미사 말미 짧은 인사말을 통해 “요셉의원이 가난한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과 기도 속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 요셉부자상 기증 및 축복식



본원의 주보 성인인 요셉 성인의 부자(父子)상을 경당에 모시게 됐다. 지난 1월 4일 서울 목4동 성당 권복주(요셉) 교우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요셉 부자상을

본원에 기증했다. 권 기증자는 “6,7년 전 한 성당에 보관돼 있다가 수리과정에서 선물로 받게 됐다”며, “요셉 부자상을 정말 필요한 곳에 기증을 하게 돼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이날 미사를 마치고 요셉 부자상을 축복한 뒤 제대 안쪽에 안치했다.

장민훈 봉사자 봉사 마감

지난 2007년 10월부터 16년 2개월 동안 본원에서 봉사한 장민훈 전영상의학팀장(76)이 지난해 12월 말로 봉사를 마감했다. 장 전팀장은 여의도성모병원과 강남성모병원 치료방사선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한 이듬해 본원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장 전팀장은 당시 영상의학실 책임자로 있던 최동식 봉사자와 함



정 전팀장은 이 기간 동안 필름으로 방사선 사진을 찍어 현상을 통해 음화를 뽑아내던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고, 현재의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을 비롯한 완전 자동화 방식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최근까지 영상의학실 봉사자로 일해온 장 전팀장은 “업무를 마감했지만, 인원이 부족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낮에 와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선물 나눔행사 진행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월 7~8일 이틀간 본원은 설 선물로 계란과 두유 세트 350개를 준비해 쪽방촌 주민 330명에게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설 나눔은 쪽방촌을 6개 구역으로 나눠 7일에는 고영초 원장을 비롯한 직원과 봉사자 5명이 2개 구역 146명에게, 그리고 8일에는 직원과 봉사자 14명이 4개 구역 184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

봉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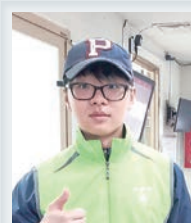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

올해 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요셉의원에서 봉사했던 김태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봉사하며 느꼈던 감정들과 감사함을 표하고자 글을 씁니다. 알려진 것처럼 사랑은 정의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보고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밥 한 공기만큼 배고프다면,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게 딱 한 공기만 주는 것이 알맞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의원에서는 알맞은 사랑을 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합니다. 주민들의 표정을 살피고, 혈색을 살피며, 감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적당한 사랑을 주려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고심 끝에 가져간 선물이 받는 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상대방을 위해 한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의원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추측컨대 요셉의원 구성원들은 다른 이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쓸모를 강요하기 바쁜 우리 사회에 요셉의원의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셉의원에서 경험한 일들을 간직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직원분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항상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신 요셉의원 직원분들, 같이 고생한 봉사자 김민철에게 감사하다는 말 남기며 글을 맺겠습니다.



김태형(을지대 간호학과 2학년)

쪽방촌 향기

“인술을 실천하는 기쁨, 함께 나누시지요”

더 많은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필요한 낮 시간에 요셉의원에 진료 봉사를 와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댁에서 한방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요셉의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료 봉사에 참여해 보자는 열망이 일어 봉사할 곳을 찾던 중 동기 한의사의 권유로 이곳 요셉의원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2년이란 시간을 넘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입니다.

대학생 때도, 언젠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나, 당시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곳저곳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한의사가 되고 진료를 보다가 문득 예전 학창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

곤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활동 보조로 아르바이트 겸 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서울 시내 투어 프로그램을 도와주면서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봉사자로 한 장애인을 맡아 1:1로 장애인 서울 시내 투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같이 들어왔을 때 제가 담당했던 장애인 형님이 온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꼭 도와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의원을 알게 되고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생 시절 다짐했던 것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료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저의 한의원에



김기현

본원 한의과 봉사의 · 달려라 한의원 대표원장

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색깔입니다. 한의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받고 일하지만, 요셉의원에서는 무료 진료 봉사이기에 마음의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둘 다 환자에게 주는 기쁨은 비슷하겠지만, 봉사의가 받는 뿌듯함과 기쁨이 더 큰 거 같아,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봉직의로 일하다 개원하게 되면서 한 달 주 4회 봉사에서 월 1회로 줄이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봉사에 뜻이 있는 의

사분들이 월 1회씩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요셉의원이나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참 의료를 실천하는 기쁨을 만끽하시리라 감히 장담합니다. 최근 한의사분들의 봉사 참여를 북돋기 위해서인지 한의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언론 매체 중 하나인 ‘한의신문’에 “한의 방문 진료는 의료소 외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필요한 낮 시간에 요셉의원에 진료 봉사를 와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댁에서 한방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요셉의원을 앞장서 이끌어주시는 신부님과 병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봉사자분과 후원자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



환자스토리



20여 년 동안 심장병 앓는 박명구 환자

“요셉의원 진료받으며 숨도 덜 가쁘고 잠도 편안하게 잡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건국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여러 큰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병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요즘에는 요셉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무렵부터 줄곧 심장 관상동맥 질환을 앓아온 박명구 환자(68)는 6년

전부터 본원에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며 “숨도 덜 가쁘고 잠도 편하게 자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예전에 담배도 자주 피우는 데다 술도 많이 들었다는 박 씨는 40대 중반 무렵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면서 폐와 콩팥에 물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생겨 대학병원에 실려 갔다. 진단 결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증이라고 했다.

“당시 119구급차로 실려 가 건국대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다 다시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았어요. 장기 입원을 안 시켜서 의정부성모병원까지 합해 병원을 일곱 군데나 옮겨가며 치료받았습니다.”

처음 입원 후 퇴원할 때 그는 의사로부터 ‘앞으로 술을 더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음주를 하다 두 번이나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

남쪽 바닷가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박 씨 역시 다소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 일을 돕다 군에 입대한 그는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전역 후 화물차 조수로 일했다. 9년 만에 화물차를 인수한 뒤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시골에 논도 사고 서울에 작은 주택도 마련했다.

이후 2000년도에 상경해 잠깐 택시 운전을 하다 빚을 내 종로 6가에서 건축자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중 옆에서 ‘치근거리

던’ 여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게 됐고, 이 일로 1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하고 보니 사업체는 사라졌고, 아내가 미싱 일을 해서 근근이 먹고 살았죠. 3년 동안 놀다가 답답해서 2011년에 택시회사에 들어가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동안 코로나로 승객이 줄어 사납금 채우기가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아내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다. 게다가 지병인 심장병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정부 수급비를 받아 본원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절에 나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곤 합니다. 건강이 나아지면 포장마차라도 해서 스스로 벌어먹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후원의 손길



부여고 1학년 학생들, 행사 때의 판매수익금 기부

“좋은 일에 쓰면 기억에 오래 남지요”

충남 부여고교 1학년 4반 학생들과 ‘남식당 팀’이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학교 행사 중에 간식을 팔아 모은 수익금 전액(18만7,850원)을 지난 1월 초 본원에 기부했다.

먼저 남식당 팀은 지난해 10월 열린 체육대회 경기 미참가 학생들로, 선생님들이 행사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남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떡볶이와 음료수 판매 지원자를 모집해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들은 학교 예산으로 떡볶이를 만들

고 음료수를 마련해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문제가 될까 봐 인원 통제를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받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판매 수익금을 모았다. 또 1학년 4반 학생들은 12월의 학교 축제 때 카페를 운영해 판매 대금을 확보했다.

남식당 팀 담당교사이자 4반 담임교사인 남태숙 선생은 “처음부터 후원을 위한 행사를 한 게 아니어서 나중에 판매 금액을 어떻게 할지 학생들과 고민하다 좋은 곳에 기부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반대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며, “교무실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자 요셉의원에 후원을 하시

는 역사 선생님께서 요셉의원을 추천해 주셨다”고 전했다.

남식당 팀 10여 명은 자신들만의 떡볶이 제조법으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내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판매가 너무 잘 되자 교장선생님도 오셨어요. 모은 돈 뭐 할 거냐고 물으셔서 기부할 거라고 했더니 금일봉을 주고 가셔서 추가 재료 사는 데 썼습니다.”

이런 남식당의 성공을 보고, 1학년 4반 학생들도 두 달 뒤 열린 학교 축제 때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교실 내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 금지돼 카페로 품목을 바꿨다. 반원들은 카페 장식을 비롯해 차 제조와 판매 등을 스스로 알아서 진행하고, 나중에 수익금을 남 선생에게 건넸다. 1학년 4반 반장은 판매금을 기부금으로 내자는 담임 선생의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물어보니 배 잠깐 부른 것보다 좋은 일에 쓰면 기억에 오래 남아 좋을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면서, 처음 해보는 기부 활동에 마음이 살짝 설렌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남식당 팀과 1학년 4반 학생들의 기부금 내역서를 교실과 교무실에 붙였더니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고 많은 학생이 다투어 하트 표시를 달았다.

남 선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그만뒀던 후원 활동을 다시 하게 됐다”며, “요셉의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며, 혹시 후원처를 찾는 이들이 있으면 적극 권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 체육대회에서 떡볶이와 음료수를 팔아 모은 수익금을 본원에 기부한 부여고 학생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CHANG JIMMY JIHOON ●Yeajin Lee ●갈승아 ●강민주 ●강백희 ●강신해 ●강인철 ●강지영 ●경규미 ●계은영 ●공창표
●곽은민 ●구경미 ●권석철 ●권성준 ●권연경 ●권익수 ●권인욱 ●김경미 ●김경자 ●김경진 ●김계홍 ●김기원 ●김리하 ●김명환
●김미리 ●김미연 ●김미예 ●김미용 ●김민애 ●김민혜 ●김선홍 ●김송연 ●김수연 ●김수진 ●김순예 ●김영숙가족 ●김원동
●김유진 ●김은옥 ●김이안 ●김이나 ●김정주 ●김종남 ●김주신 ●김주연 ●김주완 ●김중희 ●김지아 ●김지영 ●김찬우신부
●김태희 ●김현수 ●김현준 ●김현호 ●김현희 ●김형욱 ●김 희 ●김희섭 ●김희정 ●남용연 ●남주현 ●남태숙 ●노푸름 ●동 일
●마신영 ●명승재 ●문 란 ●문성준 ●문원휘 ●민관웅 ●박관식 ●박근민 ●박나현 ●박민제 ●박선영 ●박소라 ●박소영 ●박신서
●박영희 ●박윤희 ●박주필 ●박지숙 ●박현경 ●박형권 ●방대식 ●방미영 ●배진한 ●백소형 ●백지은 ●변진의 ●서민수 ●서송이
●서영관 ●서용환 ●서재현 ●서지연 ●손성경 ●손울리아나 ●신수영 ●신준용 ●심미옥 ●안태환 ●양미숙 ●양병석 ●양지연
●여혜정 ●오명순 ●오익금 ●오희윤 ●원세현 ●원용성 ●유서영 ●유신혜 ●유진오 ●유현진 ●유혜영 ●유효선 ●윤세희 ●윤여진
●윤종복 ●이경진 ●이규연 ●이규창 ●이나윤 ●이남희 ●이라희 ●이명숙 ●이문자 ●이미리 ●이미정 ●이상돈 ●이상용 ●이성규
●이성미 ●이수정 ●이승호 ●이승희 ●이시현 ●이영종 ●이예리 ●이용희 ●이원행 ●이유미 ●이유안 ●이은혁 ●이은혁 ●이인욱
●이재순 ●이재원 ●이정원 ●이정후 ●이지아 ●이철목 ●이팔형 ●이향규 ●이향윤 ●이혜나 ●이 환 ●이환기 ●이흥식 ●임경택
●임성빈 ●임지훈 ●임채영 ●임현태 ●장미경 ●장순성 ●장진석부제 ●정 담 ●정성미 ●정영미 ●정우인 ●정유자 ●정은숙
●정은주 ●조경원 ●조길림 ●조남인 ●조범자 ●조연우 ●조영수 ●조영우 ●조재경 ●조지현 ●조형래 ●조혜인 ●주요섭 ●지한솔
●지현승신부 ●진락의 ●채희자 ●최길자 ●최미선 ●최성호 ●최성환 ●최수현 ●최은경 ●최인성 ●최재철 ●최창환 ●최치호
●최하영 ●한나세연 ●한도윤 ●한연재 ●한지혜 ●현민숙 ●현은선 ●홍경옥 ●홍연지 ●홍필연 ●홍현민 ●황금희 ●황동혁 ●황소원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유)경암 ●(주)고도케미칼 ●(주)상호인터내쇼날 ●(주)영우지업사 ●ADOS Eng ●골마켓 ●커머스(주) ●네이버주식회사
●대한사료 ●미광교회초등부 ●부여고 1학년4반과 남식당 ●블리스크래프트 ●비에스치과 교정과치과의원 ●사단법인 인간의대지
●삼성늘푸른약국 ●새암조감제 ●선일금고제작 ●세무법인신명 삼성지점 ●세풍물산 ●신영토건 ●신한팩 ●염리동성당 ●오즈디자인
●우길 ●전영등포공예협회 ●제이티비씨플러스(주) ●(주)프라미스에듀 ●YS교육컨설팅 ●(주)더에이치골프 ●(주)씨앤씨 ●월드와이드
●케냐키암부 ●크린토피아 남청주지사 ●페인터골프코리아(주) ●환인제약(주)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강신걸·김선화(피스오브헤븐) : 빵 50 봉지 ●고숙재 : 감귤 1상자
●김*희(파주시) : 쌀(나라미) 10kg ●김경숙 : 삼육두유(192팩) 2상자
●김종덕 : 감귤 5상자 ●김하*(구로구) : 의류 1상자 ●대방동성당
14구역장(황산연 라파엘) : 삼육두유 5상자(100팩) ●따뜻한 농부 : 굴
2상자 ●박진경 : 케익 4개, 빵 100개 ●상영재단 : 쌀(50포) 500kg
●아이쿱생협(최종도, 송문수, 윤나리) : 소금 5kg, 오분도미 8kg, 현미찹쌀
8kg ●영등포 4가 우체국장 : 혼합과일 5상자 ●옥정영농 : 쌀 20kg ●이연숙
: 김치 5상자 ●이원희 실비아 : 한라봉 2상자 ●전혜정 : 과자 1상자 ●정승일 :
쌀 40kg ●착한과일 : 바나나 8상자 ●최재훈 : 한라봉 10kg 5상자 ●최종욱 :
감귤 2상자 ●흥기옥 : 쌀 20kg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고은*(하남시) : 옷 1상자 ●김*숙(천안시) : 옷 1상자 ●김인숙(포천) :
옷 1상자 ●김형욱 : 양말 26컬레 ●대방동성당 14구역장(황산연 라파엘) :
옷 3상자 ●대방동성당 빈첸시오회 : 의류 612점, 신발 59컬레 ●박세은 :
롱패딩잠바 2벌, 히트텍 상하의 각각 3벌 ●박은경 : 옷 1상자 ●박천수 : 옷
1상자 ●서상력 : 양말 20컬레 ●양*준(용인시) : 장갑 220컬레 ●엄혜*(인천)
: 옷 1상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옷 다량 ●염리동성당(황인환신부) :
롱패딩 55점 포함 ●유현* : 의류 1상자 ●윤*숙(화성시) : 의류 1상자 ●윤희선
: 의류 등 ●이세라 : 점퍼 1점 ●이*은(서초구) : 롱패딩 2벌 ●장*기(인천)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동아제약 : 마그라비 ●비타민엔젤스 : 나눔비타민 ●삼성늘푸른약국 :
한방파스 ●엘스케이 : 오메가3 ●인간의 대지 : 넥모클린 외 2종 ●제일한방 :
한방파스 외 2종 ●하나제약 : 노마로크 정 외 17종 ●환인제약 : 알포세틴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사)인간의 대지 : 마스크94 2500매 ●김상*(서초구) : 마스크 100매, 덴탈마
스크 1통, 어린이양말 7컬레, 녹차 1통 등 ●막달레나 공동체 : 핫팩 3000개 ●바
보의 나눔 재단 : 마스크94 20,000장 ●박*규 : 잡화 1상자 ●이세라 : KF94 마
스크 700장 ●정영미 미카엘라 : 우산 4개 ●정영미(약사) : 잡화 2상자 ●하*리
아(서대문구) : 잡화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은석(응급의학과)
백상현(영상의학과)
이슬기(한외과)
이향윤(신장내과)
이현철(내분비내과)
- 간호사 : 김해정
- 약 사 : 강명숙 손은경 조청란
- 방사선사 : 김용훈

- 일반 봉사 : 안삼리(치과팀)
박선우 신예빈 주선권(이상 간호팀)
김대윤 문주리 박윤서 박혁우
임근영 최나은(이상 약제팀)
김내리 김정주 정애진 표인국
(이상 의무기록팀)
김종혁(이미용) 김은율 오윤진
유지민 임현준 조윤진(이상 아웃리치)
김민철 김태형 최수용(이상 방문사업)
하상희(홍보팀)
- 목요급식봉사 : 나영임 고향숙 정덕호
박옥림 백윤주 공소윤 김영설 남궁양림
류위근 민성중 서동환 손영설 이원배
이홍경 조연희 지미례 최영희 홍명진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윤승원
- 사닥다리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12월	1,430 명
2024년 1월	1,490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4년 1월 말 현재)

747,701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23.12~2024.01.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설 연휴 이용해 한국에서 진료 봉사 나와



파마사와타 지역 빈민촌 의료캠프에서 자리를 함께한 한국 의료봉사팀과 필리핀 요셉의원 의료지원팀. 이들 의료봉사진은 빈민 지역 두 곳에서 이틀간 600명 가까운 환자를 진료했다.

지난 2월 10~11일 설날 연휴를 이용해 한국에서 날아온 자원봉사 의사와 간호사 및 봉사자들이 빈민촌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나서 명절을 필

리핀 환우들과 함께 '알차게' 보냈다. 이번 설 명절 봉사팀은 주기적으로 필리핀 요셉의원에 봉사를 오는 최태익 원장(재활의학, 내과)과 박상우 원장(치과)을 중심으로, 필리핀 요셉의원의 에블린 박사(소아과)와 본독(Bondoc, 내과) 박사를 포함해 의사 6명, 간호사 3명, 봉사자 1명이 참여해 외부 출장 진료를 진행했다.

이번에 진료팀이 방문한 아세로(Acero) 스트리트 지역과 파마사와타(Pamasawata) 지역은 말라본시와 나보따스시에서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진료팀은 10일 아세로 스트리트 지역에서 내과 등 일반 진료 150여 건, 치과 진료 130여 건을 진행했고, 이튿날 파마사와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숫자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 지역은 평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어서 특히 많은 환자가 몰렸다. 지난 2017년부터 매달 필리핀에 와서 빈민 진료를 하는 최태익 원장(대전보람요양

복음 묵상

'가난을 통해서 보는 삶에 대한 긍정'

결국 우리의 방향은 그들의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을 긍정하고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그저 가난한 삶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빈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가난함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가난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가난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삶



의 모습 안에서도 희로애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을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척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접하고 그 안에서 들여다보니 가난은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물로 범벅인 거리,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일상, 다 무너져



병원장)은 “이곳 가난한 지역 사람들 중에는 외상을 입고 다쳐도 치료를 못 받아 거의 불구 상태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필리핀 진료 봉사 때 필리핀요셉의원 의료진과 팀을 이뤄 번갈아 가며 교도소 네 곳과 구치소 등을 순회 진료하거나, 가난한 빈민촌을 찾아가 임시 진료소를 차리고 환자를 보고 있다. 매달 한 번씩 자비로 한국과 필리핀을 왕복하며 인술을 펴는 그는 “예전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고, 병원에는 다른 스태프들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겸손해했다.

이번 설 연휴 진료 봉사 때 치과 쪽을 맡은 박상우 원장(김포 더맑은치과 대표원장) 역시 지난 6년 간 17번이나 필리핀 의료봉사를 다녀온 ‘필리핀 봉사 베테랑’이다. 서울 요셉의원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정



설 연휴를 반납하고 필리핀 빈민 의료봉사에 나선 최태익 원장(사진 왼쪽)과 박상우 치과원장이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는 치과 검진을 받은 필리핀 어린이들.

기 치과 진료 봉사도 나가고 있는 박 원장은 “의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필리핀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들이 때가 많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오랫동안 꾸준히 이 일을 이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미 필리핀의사들, 모국 방문 진료

지난 2월 15일 재미 필리핀인들이 본원을 방문해 본원 의료진 및 마닐라 중앙대 의료진과 함께 대규모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 깔로오칸 교구장인 파블로 비르길리오(Pablo Virghilio) 주교와 필리핀 자선 재단인 ‘NO ONE IN NEED’ 주도로 열린 이번 진료 행사는 안과, 내과, 치과, 소아과로 구성하고, 미국에서 온 의료진 30명과 일반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팀은 15

일 하루 동안 약 7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미국에서 일하면서 모국에 봉사를 온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피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국애를 한껏 발휘했다. 이들과 함께 지역 의대인 마

가는 집, 질 낮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은 그들 삶이 행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또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생활 3년 차로 접어드는 요즘,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가난이라는 삶의 외피에 가려진 삶 그 자체에 대한 긍정입니다.

물론 가난을 긍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가난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가난과는 다르게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가난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마저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스스로 무척 교만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았기에 그저 가난을 단순하게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가난한 이들에게 가졌던 마음은 동정과 안타

까움이었습니다. 저는 가난과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사정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동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난이 구제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전까지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방향은 그들의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을 긍정하고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마주할 이곳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고민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재미 필리핀의사와 봉사자들이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닐라 중앙대(Manila Central University)와 필리핀 요셉의원 의료진도 참여해 더욱 풍성한 의료 행사로 치러졌다. 주 최자인 'NO ONE IN NEED' 재단측은 요셉의원 덕분에 지역의 도움이 필요

한 환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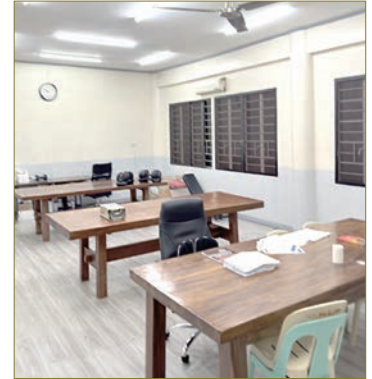
노후화된 조명 시설 교체

필리핀 요셉의원은 지난 2월부터 병원 안팎의 노후화된 전등을 교체하고 어두운 곳에 추가로 조명등을 설치하는

보강작업을 시작했다. 의료봉사팀 등이 와서 묵는 숙소 뿐 아니라 식당과 회의실, 진료실 등에 설치된 조명의 밝기가 낮아 그동안 꾸준히 보수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월과 3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조명 보강작업에서는 흐린 전등을 교체하는 외에 추가로 천장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수작업을 마치면 진료에 도움이 되고, 의료봉사팀이 머무는 숙소도 더욱 쾌적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필리핀요셉의원 회의실 천정에 등을 증설해 내부가 크게 밝아졌다.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신규 후원회원(13명)

- 강계순 ● 강영명 ● 고재모 ● 권성수 ● 권수현 ● 권순명 ● 권형희 ● 김 광 ● 김귀석 ● 김나영 ● 김만수 ● 김명경 ● 김명진 ● 김명희 ● 김미나 ● 김미아 ● 김미애 ● 김미영 ● 김병일 ● 김수현 ● 김수희 ● 김순열 ● 김안나 ● 김영삼 ● 김영숙 ● 김영식 ● 김영심 ● 김영희 ● 김은설 ● 김은희 ● 김재경 ● 김재은 ● 김재희 ● 김정녀 ● 김주희 ● 김준휘 ● 김창환 ● 김한신 ● 김한춘 ● 김현경 ● 김현숙 ● 김형화 ● 김혜경 ● 김효진 ● 김희철 ● 노지현 ● 다니엘·이레네오 ● 문민희 ● 민혜주 ● 박명희 ● 박미경 ● 박봉국 ● 박상헌 ● 박예환 ● 박재민 ● 박재준 ● 박정숙 ● 박주형 ● 박찬희 ● 배 경 ● 배경림 ● 배상은 ● 배중언 ● 배 찬 ● 서동만 ● 서상범 ● 서현주 ● 성윤지 ● 송유호 ● 신근수 ● 신기력 ● 신소연 ● 안동울 ● 양승호 ● 엄찬섭 ● 엄태민 ● 여윤숙 ● 여윤심 ● 엄정옥 ● 위성진 ● 마르티노·위성현 실비아 ● 유재자 ● 유정희 ● 유지영 ● 유현국 ● 윤등미자 ● 윤정현 ● 윤효정 ● 이강훈 ● 이광규 ● 이근임 ● 이다운 ● 이미하 ● 이상혁 ● 이상호 ● 이석원 ● 이설화 ● 이성현 ● 이윤숙 ● 이은정 ● 이은정 ● 이정우 ● 이 진 ● 이진형 ● 이혜윤 ● 이현주 ● 익명(첫축일) ● 임다현 ● 임상진 ● 임선빈 ● 임채준 ● 임 하 ● 장희익 ● 정광재 ● 정승일 ● 정정임 ● 정지연 ● 정채아 ● 정혜경 ● 조용호 ● 조재동 ● 조혜인 ● 주미숙 ● 지 형 ● 지혜순 ● 차군식 ● 천재경 ● 최남순 ● 최민서 ● 최상열 ● 최영한 ● 최인형 ● 최진환 ● 최향숙 ● 한봉순 ● 한상희 ● 한인희 ● 함창화 ● 현은경 ● 홍경숙 ● 홍명희 ● 홍유미 ● 홍한기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신규 후원단체

- 서울 대신학교 밀알대 ● 성산동 OB청년공동 ● (주)진성테크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447명 ● 급식 895명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95,633명 ● 급식 489,507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12~2024.0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추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바오로딸 서점에 설치한 '기부 트리' 모습.

“크리스마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부 트리’ 만들어 가난한 신부들 후원

내가 좋아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목젓이 보이게 웃는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해 나누는 평화 인사,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몸짓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님의 강복으로 미사가 끝나면 두 팔을 올려 손을 흔들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꼭 ‘하느님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는 저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오로딸 서점 한가운데에 ‘기부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트리에 기부 주머니를 달고 빵구유를 만들어 기부한 사람들이 주님의 선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빵구유는 우리를 위해 여물통이라는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시고,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우리가 도와야 할 가난함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처지에서든 나눔은 시작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리고 함께 주님의 길을 닦아보자는 마음에서 빵을 굽고 꼬지락거리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저에게 참 기분좋은 고단함이었습니다.

기부 트리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기부 트리는 잘 자라주었고, 주님께서는 기부 천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들은 서점에 들러 책만 만지작거리던, 가벼운 주머니를 가진 열정 가득한 신부님들께 단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마태 14,17-18) ✚

2024년 2월 1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성바오로딸 수도회) 드림



☞ 2023년 9월 21일 요하네스버그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학생 109명과 신학교 도서관을 위한 신앙서적을 1차 지원하였습니다 (8,408,400원). 2024년 3월 중에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학생 110명에게 신앙서적을 2차 지원할 예정입니다.

“TV 시청시간이 성경읽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콰도르 지역 공부방에서 ‘30분 성경 읽기’로 놀라운 경험



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부터 이곳 산타 엘레나 지역 공부방에서 40여 명의 가난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일 ‘30분 성경 읽기’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한 차례씩 완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멀리 남미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서 인사드립니다. 국성회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을 빕니다.

째 완독을 하게 돼 며칠 전 성경 읽기를 마치고 난 소감과 체험 나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다음날 새로 구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는 기증받은 성경을 가족별로 한 권씩 나눠주면서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하는 한편,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의 성경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여유가 없으면 저희가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20가족 40여 명 중 일부는 온라인상으로, 몇 명은 개인적으로 성경 책을 읽습니다. 매일 진도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면 제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번에 새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을 때 모두들 열심히 초대를 해줘서 여섯 가정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산타 엘레나 지역에 개설한 공부방에서 성경읽기를 하는 모습과, 성경읽기 모임 단체사진, 코로나 시기 비대면 화상회의로 성경읽기를 하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가족이 다 함께 성경을 읽는 가정은 시간에 맞춰 온 가족이 모이고, 밤이면 TV를 보던 시간이 성경 읽기 시간으로 바뀌면서 가정 분위기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기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저희에게 성경을 후원해 주신 국성회 분들과 나누고 싶어 짧은 글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

2024년 2월 6일 에콰도르에서

김미옥 마리 스킨라스티카 수녀(성령강림사도수녀회) 드림

☞ 2023년 5월 3일 공부방 어린이들, 봉사자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스페인어 성경 70권, 그림성경과 어린이 성인전 모음집을 지원하였습니다(총 3,005,300원).

압구정1동 성당에서 홍보미사 봉헌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에서 지난 1월 20일~21일 이틀간 국성회 홍보미사가 봉헌됐다. 국성회 담당사제인 홍근표 바오로 신부(요셉 나눔재단 사무총장)가 1월 20일(토) 오후 6시 미사와 이튿날인 주일 새벽 6시 30분 미사를 집전했고, 나머지 미사에서는 강론을 통해 국성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성회 임직원은 본당 1층 실내에 소개 부스를 설치해 해외 성경 지원 등 후원 활동 사진 자료와 국성회에서 소장한 외국어 성경을 전시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 접하는 외국 부족어 성경과 현지인들의 삶과 자연을 담은 사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레 국성회 후원으로 이어졌다. 미사 당일 110명의 신자들로부터 후원신청서가 접수됐고, 현장 모금 3,220,000원, 2차 헌금 3,712,00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 후원금들은 모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가난한 나라에 성경 보급과 교재 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

☞ **압구정1동 성당 소개** : ○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은 1999년 2월 18일 압구정 성당에서 분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본당 명칭은 압구정2동 성당이었으나, 2001년 9월 21일 압구정1동 성당으로 변경됐다. 본당 주보는 주님승천이다.



박찬순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국성회 임직원들이 압구정1동 성당에서 외국어 성경과, 성경을 지원 받은 외국의 현지 사진을 전시하고, 교우들에게 성경 지원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 2023년 국성회 수지보고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원

계정과목	수입	지출
전기이월금	579,485,690	
후원금	78,897,046	
이자수입	13,884,135	
접수입	752,620	
급여		10,200,000
복리후생비		1,449,420
수도광열비		249,610
통신비		1,801,780
자금수수료		246,370
인쇄비		573,320
소모품비		143,500
해외성경지원사업비		135,017,081
이자법인세		2,134,430
차기이월금		521,206,980
합계	673,019,491	673,019,491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3년 12월~2024년 1월)

●강석철 ●고도원 ●고동현 ●고현수 ●고현주 ●곽효민 ●구민영 ●김경동 ●김경준 ●김광자 ●김금재 ●김낙기 ●김덕순 ●김만길
●김명숙 ●김명희 ●김미현 ●김범준 ●김병희 ●김상숙 ●김선옥 ●김수현 ●김성권 ●김승원 ●김영추 ●김영환 ●김윤순 ●김은숙
●김은주 ●김윤순 ●김정화 ●김진우 ●김태남 ●김현경 ●김현숙 ●김희수 ●나삼균 ●노미미 ●류연자 ●류혜선 ●문순자 ●민영진
●박소향 ●박수진 ●박언빈 ●박영훈 ●박재우 ●박찬순 ●박춘옥 ●박혜숙 ●박효종 ●배광익 ●송미경 ●송병현 ●송보영 ●신해경
●양영실 ●양창호 ●엄옥진 ●오명순 ●오세형 ●오소연 ●오승웅 ●오영신 ●유승영 ●윤영순 ●윤영찬 ●윤용식 ●윤종구 ●윤창현
●이강득 ●이경식 ●이동희 ●이미순 ●이미용 ●이상숙 ●이상현 ●이용애 ●이용우 ●이원석 ●이일호 ●임순태 ●이장순 ●이정석
●이정희 ●이종대 ●이종환 ●이향희 ●이현옥 ●이현창 ●이혜순 ●이희인 ●임순태 ●임한미 ●장선화 ●장수진 ●전대영 ●정수자
●정영미 ●정재숙 ●조덕순 ●조성미 ●조하영 ●조현순 ●주희숙 ●지태근 ●최권옥 ●최두혁 ●최명옥 ●최이소 ●하금태 ●하상옥
●허 근 ●허봉희 ●허순덕 ●홍성실 ●홍지원 ●황세희 ●황영희 ●황태운 ●황현주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3년 12월~2024년 1월)

●김경식 ●김원호 ●박우준 ●서상범 ●신현박 ●오창선 ●유경춘 ●이계호 ●이문주 ●임상무 ●정순택 ●조인기 ●최광희 ●최명근
●최정훈 ●한정화 ●홍근표 ●양양성글라리아수녀원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 (2023년 12월~2024년 1월)

●강만철 ●강선구 ●강선덕 ●강정아 ●김명준 ●김선희 ●김수미 ●김여진 ●김은숙 ●김정민 ●김정임 ●김현숙(압구정1동) ●김형순
●김홍진 ●나영은 ●류미강 ●박금애 ●박세희 ●박순자 ●박영웅 ●봉연규 ●서영애 ●서영자 ●서현동 ●서효리 ●손정숙 ●손정애
●송재욱 ●엄화섭 ●오영남 ●유재민 ●윤정숙 ●이상순 ●이용순 ●이원영 ●이임득 ●이종상 ●임옥란 ●장이태 ●전명희 ●전소연
●전 숙 ●정영길 ●정진석 ●조점복 ●최승희 ●한상호 ●한성호 ●허윤석 ●황선자 ●후원금(익명후원자)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 (2023년 12월~2024년 1월)

●가톨릭여성연합회 ●성산동OB청년공동체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3. CMS 자동이체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2023년 12월~2024년 1월
후원금 내역 : 38,253,046원

2024년 3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멍에 줄을 끌려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 이사 58, 6-8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7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5번째 주 제외)



식사 나눔(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옷 나눔

시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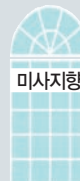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